

전통적으로 이용되는 제주 야생버섯의 종류와 분포

고평열 · 이승학 · 전용철*

제주대학교 생물산업학부

Species and Distribution of Native Wild Mushrooms Traditionally using in Jeju Island

Pyung Yeol Ko, Seung Hak Lee and Yong Chull Jeun*

Major of Plant Resources & Environment, College of Applied Life Sciences, The Research Institute for Subtropical Agriculture and Biotechnology,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690-756, Korea

(Received February 24, 2012. Revised March 13, 2012. Accepted March 23, 2012)

ABSTRACT: The knowledge of native wild mushrooms traditionally using in Jeju Island, that have specific native environment and various biodiversity, was investigated. From Jeju and Seogwipo cities including 7 provinces 4 locals, so total 50 villages, data was collected in the entire area and voice of the 93 elderly people between the age of fifty and ninety were recorded. As a result, total 23 native wild mushrooms were used in which 2 species were poisonous mushrooms, 7 species were medicinal mushrooms, 2 species was used for folk religion, 2 species were not used for living but for attention and 12 species were edible mushrooms. Also, a total of 267 cases of traditional knowledge was collected, in which 197 cases were about edible mushrooms for 12 species, 43 cases were about poisonous mushrooms for 2 species, 16 cases were about medicinal mushrooms for 7 species. Interestingly, the fortune for agriculture was told depending on spore mass release of *Cyathus stercoreus* which grows in animal feces and compost. It is considered as the distinctive traditional knowledge of Jeju Island.

KEYWORDS: Biodiversity, Jeju-do, Traditional knowledge, Wild Mushroom

서 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풍부한 자생생물상이 분포하고 있어 우리 선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생생물들로부터 의약품, 식량, 기호품 등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의존하여 왔다. 최근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약용 자생 생물로부터 신약이 개발되는 등 세계 각국의 정부와 학자들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들 자생생물의 이용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명의 발달과 관련지식 보유자의 고령화 등으로 자생생물들의 다양한 이용에 대한 전통 민속지식이 점차적으로 소실되고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독특한 지리환경과 옛 탐라국의 역사가 깃든 특이한 민속 문화로 인하여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한 전통양식이 존재하고 있고, 독특한 제주 지역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지리적으로는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풍부한 동·식물을 포함하는 산림이 형성되어 있으며 계곡, 기암과 소연, 수많은 소화산재와 꽃자왈, 동굴과 초원 등 제주만이 지닌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제주도는 타 지역보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관광객 등 외부인 출입이 잦으며 제주에 정착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반면, 제주출신 사람들은 직업을 찾기 위해 섬을 떠나는 상황으로 제주 고유의 지식이 타 지역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령층의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과 구전되어 온 자생버섯에 대한 전통 지식은 조속히 정보화되어야 하나, 노인들의 급속한 기억력 감퇴현상과 사망 등에 의하여 함께 사라지고 있다.

최근 생물유전자원이 국부(國富)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를 앞두고, 다른 나라의 생물 유전자원을 채집, 반출해 의약품이나 식량, 신소재 등으로 상품화 하려는 특정국가나 기업은 유전자원을 보유한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 또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도 보호대상에 넣었으며, 전통지식을 이용해 특정 외국기업이 신약을 개발했을 경우 그 이익을 그 지역민과 공유할 것으로 정하였다.

반면 아직까지는 전통의 생활양식이 보전되고 있는 제주도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토착지역민들로부터 구전되고 있으나, 사라져 가고 있는 야생버섯의 전통적인 이용법과 효능과 가치에 대한 조사는 전무하여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급한 실정에 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ycjeun@jejunu.ac.kr>

제주지역은 이(1998)와 오(2005), 고(2009)등에 의해 보고된 바에 의하면 72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야생버섯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다. 이에 제주지역에 자생하는 야생버섯에 대한 전통지식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Database를 구축하는데 일조하고, 생물 산업 연구의 기반 구축 및 우리의 생물자원 주권확보 및 확립에 기여하며, 나고야(ABS)의정서 채택에 따른 생물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국가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의 독특한 전통지식들을 생태관광 및 체험학습 자료로 활용하고, 제주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전통지식에 대한 데이터와 확증표본을 확보하여, 제주지역의 전통지식 자원의 보전대책 수립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및 방법

본 조사는 제주도 지역에서 이용되어 온 야생버섯의 전통적 지식과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시, 한림읍 등 7개 읍, 안덕면 등 4개 면을 조사하였다(Fig. 1).

야생버섯 채집은 현지인들의 면담 조사를 통하여 버섯의 발생 시기와 위치 정보를 파악한 후 채록지 인근 지역 위주로 실시하였다. 버섯표본 채집은 어린 자실체와 성숙한 자실체를 모두 핀셋과 면도칼을 이용하여 자실체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채집하였다. 채집한 버섯은 기름종이로 각각 포장하고 비닐팩에 담아 운반하였다. 이때 다른 버섯의 포자나 분질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포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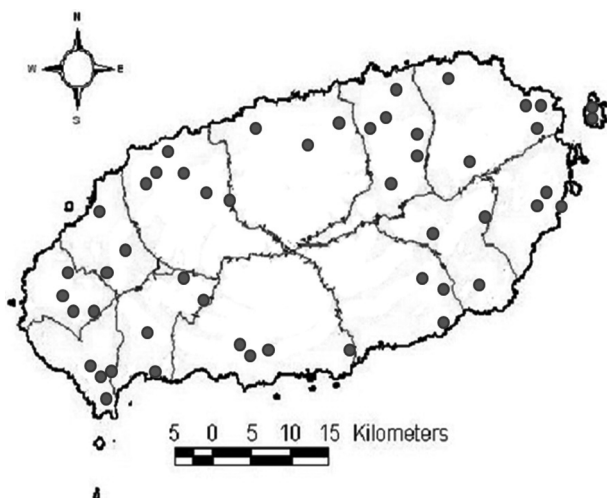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map of the surveyed area for wild mushrooms in Jeju Island.

채집된 버섯은 개체 수와 출현 빈도, 크기 등을 기록하고, 버섯건조기(KALTENBACH, Type 1100, Japan)로 수분이 5% 미만인 되도록 완전건조 시켰다. 채집한 버섯의 분류는 Index fungorum (<http://www.indexfungorum.org/Names/Names.asp>)의 신분류체계를 따라 분류하였고, 동정은 김 등(2005), 김 등(2008),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2004), Breitenbach와 Kranzlin(1995), Imazeki와 Hongo(1987, 1989), Imazeki 등(2002) 등의 문헌과 도감을 참고하여 동정하였다.

버섯의 건조표본 보관은 지퍼 팩에 넣어 사각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담아 통풍이 잘 되고 습도가 낮은 보관함에 보관하였다.

결과 및 고찰

2011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60회에 걸쳐 방문 조사한 결과 50개 마을에서 전통식물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하여 버섯의 이용방법, 분포, 지방명 등의 전통지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총 93명(남자 50명, 여자 43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야장 164장의 설문조사를 작성하여 분석하였고(Table 1) 이들의 평균나이는 남자 74.1세, 여자 83세였다. 전통시장 3곳에서는 3명의 정보제공자를 통해 조사되었다(Table 2).

본 조사를 통해 제주지역의 민간에서 이용된 식용버섯은 12분류군, 독버섯은 2분류군, 약용버섯은 7분류군으로 나타났으며, 민간신앙으로 2분류군, 놀이용으로 이용된 버섯은 3분류군 이었고(Table 3), 제주에서 이용되어 온 버섯은 총 20속 23분류군이였다(Table 3). 이 중 표고(*Lentinula edodes*, Fig. 2B)는 식용, 약용, 민간 신앙용으로 널리 쓰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지역에 자생하는 버섯 중 식용버섯은 12분류군에 식용에 관련된 197건의 전통지식이 수집되었다. 가장 이용도가 높았던 식용버섯은 큰갯버섯(*Macrolepiota procera*, Fig. 2A)으로, 조사 대상지였던 50개 마을에서 녹취 대상 주민 93명에게서 모두 식용으로 이용되었던 전통지식이 채록되었으며, 식용방법, 서식처 등에 대한 67건의 전통지식이 수집되었다. 그 다음으로 팽나무버섯(*Pulammulina velutipes*, Fig. 2C)이 36건, 목이(*Auricularia auricula*, Fig. 2D)는 24건, 표고(*Lentinula edodes*, Fig. 2B)는 22건 등이었다. 큰갯버섯 한 종 만을 식용버섯으로 알고 있는 마을도 상당수에 이르렀다.

독버섯에 대한 전통지식은 총 2분류군, 43건의 전통지식이 수집되었으며, 이 중 독큰갯버섯(*Macrolepiota neo-mastoidea*, Fig. 2E)은 큰갯버섯(*Macrolepiota procera*, Fig. 2A)과 유사하여 독버섯 중독 사례가 많았으며, 그 외 서식지 정보 등 40건의 전통지식이 수집되었다. 대부분 복통, 구토, 정신이 혼미해지는 증언들이 많았으며 심하면

Table 1. Wild mushrooms showed on questionnaire of investigated regions in Jeju Island

	Investigated regions				
	Udo	Aewol	Hallim	Jeju	Seongsan
Species	<i>M. procera</i>	<i>M. procera</i>	<i>M. procera</i>	<i>M. procera</i>	<i>M. procera</i>
		<i>L. edodes</i>	<i>L. edodes</i>	<i>A. auricula</i>	<i>M. neomastoidea</i>
		<i>M. neomastoidea</i>	<i>A. auricula</i>	<i>M. neomastoidea</i>	<i>P. velutipes</i>
		<i>C. versicolor</i>	<i>M. neomastoidea</i>	<i>G. applanatum</i> <i>P. velutipes</i>	<i>S. granulatus</i>
Total species	1	4	4	5	4
	Gujwa	Namwon	Daejeong	Pyoseon	
Species	<i>M. procera</i>	<i>M. procera</i>	<i>M. procera</i>	<i>M. procera</i>	
	<i>L. edodes</i>	<i>L. edodes</i>	<i>A. auricula</i>	<i>L. edodes</i>	
	<i>M. neomastoidea</i>	<i>A. auricula</i>	<i>M. neomastoidea</i>	<i>A. auricula</i>	
	<i>C. stercoreus</i>	<i>M. neomastoidea</i>	<i>G. applanatum</i>	<i>M. neomastoidea</i>	
	<i>P. velutipes</i>	<i>P. velutipes</i>	<i>C. molybdites</i> <i>C. versicolor</i> <i>S. bovinus</i> <i>T. fuciformis</i>	<i>C. stercoreus</i> <i>P. velutipes</i>	
Total species	5	5	8	6	
	Hangeong	Andeok	Jocheon	Seogwipo	
Species	<i>M. procera</i>	<i>M. procera</i>	<i>M. procera</i>	<i>M. procera</i>	
	<i>L. edodes</i>	<i>L. edodes</i>	<i>L. edodes</i>	<i>L. edodes</i>	
	<i>L. nuda</i>	<i>L. nuda</i>	<i>A. auricula</i>	<i>A. auricula</i>	
	<i>M. neomastoidea</i>	<i>A. auricula</i>	<i>M. neomastoidea</i>	<i>M. neomastoidea</i>	
	<i>P. velutipes</i>	<i>C. comatus</i>	<i>C. stercoreus</i>	<i>C. stercoreus</i>	
	<i>S. granulatus</i>	<i>M. neomastoidea</i>	<i>P. velutipes</i>	<i>P. velutipes</i>	
	<i>G. lucidum</i>	<i>C. stercoreus</i>	<i>S. granulatus</i>	<i>S. bovinus</i>	
	<i>A. arvensis</i>	<i>P. velutipes</i>	<i>P. linteus</i>	<i>T. fuciformis</i>	
	<i>P. ostreatus</i>	<i>S. granulatus</i>	<i>N. sublateritium</i>	<i>L. sulphureus</i>	
		<i>L. perlatum</i> <i>A. hygrometricus</i>	<i>G. lucidum</i> <i>P. ostreatus</i>	<i>S. crispa</i> <i>L. perlatum</i> <i>P. ostreatus</i>	
Total species	9	11	11	12	

Table 2. Age groups of people interviewed

	Age of interviewed people				
	50th	60th	70th	80th	90th
Number of people	5	11	31	42	4

Table 3. Wild mushrooms using local residents in Jeju Island

Scientific name	Korean name	Usage*	No. of questionnaire
<i>Agaricus</i>	주름버섯속		
<i>A. arvensis</i> Schaeff.: Fr.	흰주름버섯	edi	1
<i>Chlorophyllum</i>	흰갈대버섯속		
<i>C. molybdites</i> (G. Mey. Fr.) C.	흰갈대버섯	tox	3
<i>Coprinus</i>	먹물버섯속		

Table 3. Continued

<i>C. comatus</i> (Mull. ex Fr.) Pers.	먹물버섯	others	2
<i>Macrolepiota</i>	큰갓버섯속		
<i>M. procera</i> (Scop.; Fr.) Sing.	큰갓버섯	edi	67
<i>M. neomastoidea</i> (Hongo) Hongo	흰독큰갓버섯	tox	40
<i>Lycoperdon</i>	말불버섯속		
<i>L. perlatum</i> Pers.	말불버섯	others	1
<i>Lentinula</i>	표고속		
<i>L. edodes</i> (Berk.) Pegler	표고	E, M, R	22
<i>Cyathus</i>	чат잔버섯속		
<i>C. stercoreus</i> (Schw.) De Toni	좁주름чат잔버섯	rel	14
<i>Pulammulina</i>	팽나무버섯속		
<i>P. velutipes</i> (Curt.: Fr.) Sing	팽나무버섯	edi	36
<i>Pleurotus</i>	느타리속		
<i>P. ostreatus</i> (Jacq.: Fr.) Kummer	느타리	E	5
<i>Naematoloma</i>	개암버섯속		
<i>N. sublateralitium</i> (Fr.) Karst.	개암버섯	edi	2
<i>Lepista</i>	지주방망이버섯속		
<i>L. nuda</i> (Bell.: Fr.) Cooke	민지주방망이버섯	edi	14
<i>Suillus</i>	비단그물버섯속		
<i>S. granulatus</i> (L.: Fr.) D. Kuntze)	젓비단그물버섯	edi	12
<i>S. bovinus</i> (L.: Fr.) O. Kuntze	황소비단그물버섯	edi	3
<i>Astraeus</i>	먼지버섯속		
<i>A. hygrometricus</i> (Pers.) Morgan	먼지버섯	med	1
<i>Phellinus</i>	진흙버섯속		
<i>P. linteus</i> (Berk. & M.A. Curtis) Teng	목질진흙버섯(상황)	med	3
<i>Laetiporus</i>	덕다리버섯속		
<i>L. sulphureus</i> (Fr.) Murr.	덕다리버섯	med	3
<i>Ganoderma</i>	불로초속		
<i>G. lucidum</i> (Leyss.: Fr.) Karst.	불로초(영지)	med	5
<i>G. applanatum</i> (Pers.: Walir.) Pat.	잔나비불로초	med	1
<i>Coriolus</i>	구름버섯속		
<i>C. versicolor</i> (L.: Fr.) Quél.	구름버섯	med	2
<i>Auricularia</i>	목이속		
<i>A. auricular</i> (Hook.) Underw	목이		
<i>Tremella</i>	흰목이속		
<i>T. fuciformis</i> Berk.	흰목이	edi	4

*Abbreviation: E = edible, T = toxic, M = medical, R = religious, and O = others.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약용버섯에 대한 정보는 총 7종 버섯에 16건의 전통지식이 조사되었으며, 이 중 불로초(일반명; 영지, *Ganoderma lucidum*)에 대해 5건의 전통지식을 수집하였으나 그 이외의 버섯은 약용으로의 이용이 미미하여 식용버섯에 비해 전통지식이 적게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동물의 분변이나 퇴비에 발생하는 좁주름чат잔버섯(*Cyathus stercoreus*)을 이용하여 포자괴의 방출 상태를 보고 농사의 길흉을 점쳐

왔다는 점으로(Fig. 2F) 이는 제주지방만의 독특한 전통지식으로 추정된다.

적 요

독특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물상을 지닌 제주도에서 지역민들에게 이용되어 왔던 자생버섯에 대한 전통지식을 조사하였다. 제주도 전 지역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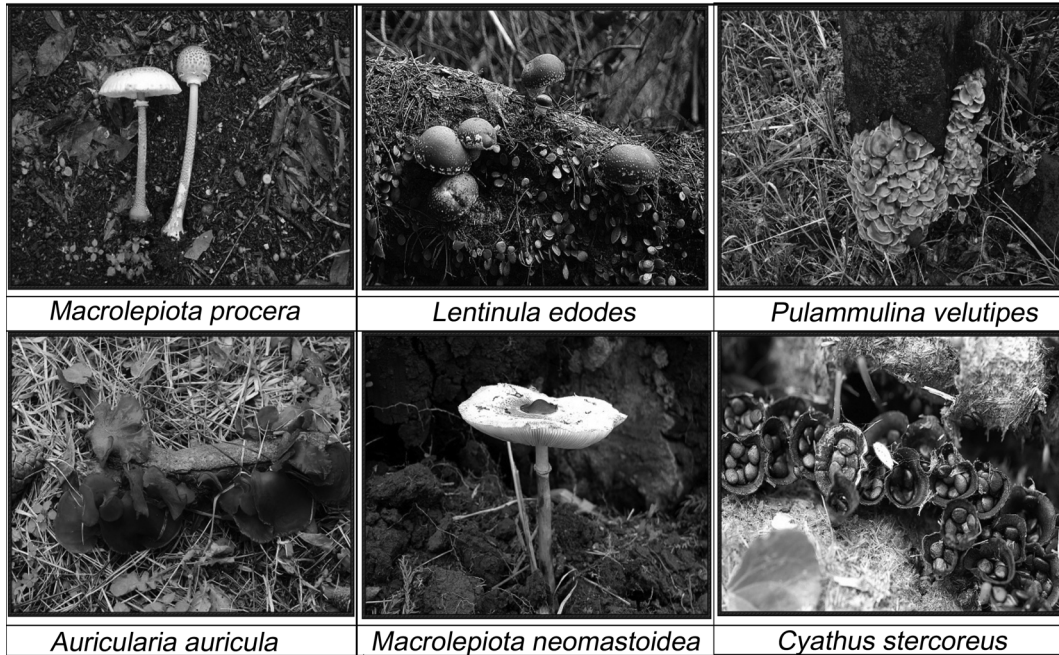


Fig. 2. Photographs of native wild mushrooms traditionally used in Jeju Island.

제주와 서귀포시 내에 있는 7개 읍과 4개의 면을 대상으로 총 50개의 마을을 조사하였으며 50~90대 사이의 노인들 93명을 방문하여 녹취하고 야장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제주도에서 이용되어온 야생버섯은 모두 23종으로 나타났다, 그 중 독버섯은 2종, 약용버섯은 7종, 민속신앙에 이용되었던 버섯이 2종, 이용되지는 않았으나 관심 대상이었던 버섯이 2종, 그리고 식용버섯은 12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야생버섯을 이용하는 전통지식으로 267건의 전통지식이 수집되었다. 그 중 식용버섯은 12종에서 197건의 전통지식이 수집되었고, 독버섯에 2종에서 43건이 수집되었으며, 약용버섯에 대한 정보는 7종에서 16건의 전통지식이 조사되었다. 특이한 점은 동물의 분변이나 퇴비에 발생하는 *Cyathus stercoreus*을 이용하여 포자괴(spore mass)의 방출 상태를 보고 농사의 길흉을 점쳐왔다는 점이 있었다. 이는 제주지방만의 독특한 전통지식으로 추정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1년도 생물자원관 연구사업 지원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참고문헌

고평열. 2009. 제주도 선홍꽃 동백동산에 자생하는 버섯의 생태

-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pp. 33-36.
 고평열, 김찬수, 신용만, 석순자, 변광옥. 2009. 제주지역의 야생버섯. 국립산림과학원. p. 463.
 고평열, 이가은, 전용철. 2011. 제주도 물영아리오름에 자생하는 버섯의 종다양성 연구. 한국자연보존연구지 3, 4.
 김수철, 이정배, 오덕철. 2002. 한라산 자생버섯의 서식분포와 유용성에 관한 연구. 기초과학연구 15(2).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pp. 49-50.
 김양섭, 석순자, 김환규, 원항연, 이강호. 2005. 한라산의 버섯. 제주도농업기술원 p. 317.
 김현중, 한상국. 2008. 광릉의 버섯. 446pp.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원. 2004. 한국의 버섯-식용버섯과 독버섯. p. 467.
 오덕철. 2005. 제주도 버섯자원의 다양성.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 18:1-29
 이정배. 1998. 한라산의 고등균류상.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pp. 2-19.
 이태수. 2011. 한국 기록종버섯 재정리 목록. 저술출판 pp. 1-36
 Breitenbach, J. and Kranzlin, F. 1991. Fungi of Switzerland. Vol. 1.-6. Mycological Society of Lucerne. Switzerland.
 Imazeki, R. and Hongo, T. 1987. Colored Illustrations of Mushrooms of Japan I. Hoikusha. Japan. p. 325.
 Imazeki, R. and Hongo, T., 1989. Colored Illustrations of Mushrooms of Japan II. Hoikusha. Japan. p. 315.
 Imazeki, R., Y. Otani, Y. and T. Hongo, 2002. Fungi of Japan. Yamakei Publishers. Japan. p. 623.